



## 자폐범주성장애의 사회적 의사소통 증재연구 분석\*

이 근 용\*\* · 김 화 수\*\*\* · 이 상 진\*\*\*\*

### Analysis of Intermediation Research on Social Communication of Autism Spectrum Disorder

Rhee, Kunyong\*\* · Kim, Whasoo\*\*\* · Lee, Sangjin\*\*\*\*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examine the corresponding implic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intervention media, intervention techniques, and the social communication skills in a range of publications on social communication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Method]** Forty-eight studies on social communication intervention of children with ASD published from 2009 to 2019 were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Results]** A review of recent publication trends on this topic by year and type show that there was the highest number of publications in 2019, master's thesis being more abundant than academic papers. Participant composition of the reviewed studies reveals that most case studies involved pre-school children with mild to moderate levels of autism, comprising a sample size of 1 or 3. As for the environment of intervention, the most common physical setting in which treatment took place was the therapy room. Treatment was typically administered by the researcher over the course of 11-15 or 16-20 sessions. The most popular media employed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interventions—improving participants' social communication skills—were play activities, technology-mediated activities, and visual flashcards. The most adopted intervention methods were, in descending orde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family-mediated intervention, social story intervention, and Milieu teaching. The ability to make requests was the target social communication skill in the majority of reviewed studies, with a substantial overlap with AAC. **[Conclusion]** An analysis of social communication evaluation criteria by intervention method demonstrates that AAC and social story intervention methods were mainly used to enhance the capability for making requests, while social story intervention and Milieu teaching were used to induce more spontaneous speech from children with ASD.

**Key Words :** Autism Spectrum Disorder, Social Communication, Media, Intervention

\* 이 연구는 2018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이며, 이상진의 2020년 석사학위 논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성되었음.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whasoolang@daegu.ac.kr)  
Professor,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  
Professor,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사소통이란 구어나 문어를 포함한 언어적 요소와 눈 맞춤, 제스처나 자세, 얼굴 표정, 억양,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능력을 지닌다(Hanline, Nenes & Worthy 2008). 의사소통은 일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으로 문제가 생길 시 가볍게는 학습에 어려움부터 시작하여 정도가 심해질수록 소통의 부재와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 화용론적 기능, 즉 목적과 문맥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언어 이전기 또는 발달 초기에 이미 습득하게 된다(김영태, 2014). 아동이 생후 12월이 되도록 웅얼이, 몸짓을 사용하지 않으며, 16개월에 한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24개월에 두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지 못하거나 특정 연령에 이르러 언어 및 사회적 기술에 퇴행을 보이면 그 아동은 자폐범주성장애를 포함하여 언어발달지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신현기, 이성봉, 이병혁 역 2014).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은 대체로 늦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 특징으로 의사소통 의도가 부족하여 상대방과 소통보다는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발적인 발화 부족과 더불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즉각반향어, 지연반향어 형태의 구어 산출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은 주의 끌기의 결함이 있어 대화 시작 시 먼저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는 의사소통 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언제 상대방의 주위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cTear & Conti-Ramsden, 1992).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40~50%가량이 유용한 말을 습득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연구 설계와 접근법을 사용한 많은 연구에서 유아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게 되면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75~90%는 기능적 구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소현 이은정 역, 2009).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가 2013년에 발행한 DSM-5에서 전반적 발달장애(PDDs)라는 용어와 그 하위유형들을 삭제하고 대신 자폐범주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이하 ASD)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주요 결함으로 첫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결함 두 번째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패턴과 행동 및 비정상적인 관심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APA, 2013).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중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법 문헌 분석을 통해 그림교환의사소통 체계는 의사소통의도를 증진시켰으며, 환경중심언어는 자발화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박지윤, 2012). 감각통합훈련을 통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구어와 행동을 사용한 의사표현이 증가하였음을 기술하거나(이동욱, 2017), 기능중심의 종합적 중재가 즉각적인 반향어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적절한 의사소통 반응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도 있었다(김하은, 문현미, 2019).

사실 이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치료 연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분석 시 여러 가지 영역을 분류하여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고찰한 연구는 드물었다.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중재기법 중 언어치료만을 사용한 중재기법과 언어치료와 음악, 미술, 감각통합 등을 결합하여 사용한 중재기법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사회적 의사소통 향상’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분류 후 중재 언어 영역, 사용한 중재기법, 긍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요즘 교육 또는 중재치료 현장에서는 하나의 중재 방법이 아닌 다양한 중재 방법을 접목한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분석 연구를 통해 다채로운 중재방법의 긍정적인 점을 융합하고, 새로운 방향의 자폐범주성장애 교육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재방법, 중재매체, 질적 수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2. 연구 문제

- 1)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에 관련된 연구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 2)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에 사용된 기법과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에 관련된 연구들이 사용한 논문

의 질적 지표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논문 선정 기준 및 방법

문헌연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년간 출간된 논문에 대해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출간된 국내 논문 중 KCI 등재 및 등재후보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같이 분석하였다. 일차적인 주제어로 ‘자폐’, ‘의사소통’, ‘자발화’, ‘음악’, ‘미술’, ‘언어’, ‘AAC’ 등으로 제시한 결과 학위논문 138편 학술지 212편 논문 총 350편이 검색되었다. 이 같은 연구 가운데 자폐범주성장애 진단기준을 DSM-IV 또는 DSM-5 분류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자폐성향’, ‘발달장애’ 등으로 제시한 논문 역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자가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인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장애(지적장애, 뇌성마비 등)를 포함하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의사소통(요구하기, 자발화, AAC, 반응하기)이외의 다른 종속변인(눈 맞춤, 문제행동 등)이 포함된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이 언급된 부분만 따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48개의 논문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분석되었다.

### 2. 중재연구 특성 분석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된 중재 기법과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박지윤(2012)에 사용된 논문 분석 틀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 맞게 보완 및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Framework for Intervention Research Feature**

Classification		Sub-Categories
Publication	Year	2009 ~ 2019
	Type	Master's Thesis Academic Journal
Participants	Sample Size	1 ~ 6
	Age Group	Pre-school Elementary School: Lower (grades 1~3) & Higher (grades 4-6) Middle School <
	Level of Autism	Level 1: Mild Level 2: Moderate Level 3: Severe Mixed Unspecified
	Physical Setting	Therapy Room Home Public School / Special-Education School Pre-school Mixed
Environment	Mediator	Researcher Family Peer
	Research Period (No. of Sessions)	6-11 11-15 16-20 21-25 26-30 31 <
	Medium	Play Art Music Flashcard Technology Physical Exercise Outdoor Cooking
Method	Dependent Variable	Request Spontaneous Speech AAC Response
	Independent Variable	AAC Social Story Flashcard etc.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 3. 연구 중재의 분석기준

#### 1) 중재에 사용된 매체 분석기준

연구 중재 시 사용된 도구 및 활동을 기준으로 놀이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그림글자카드, 컴퓨터 및 기계사용, 야외활동, 운동활동, 요리활동으로 나누었고 <표 2>에 따라 정리하였다.

<Table 2> Analysis Criteria for Intervention Medium

Intervention Medium	Definition
Play	Play activities using toys that appeal to children ( building blocks, toy cars, toy trains).
Art	Artistic activities using materials such as colored pencil, colored paper, and paint.
Music	Musical activities involving listening to melodie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singing children's songs.
Flashcard	In case picture and letter cards were used
Technology	Activities mediated by electronic devices (computers, tablet PC's, interactive whiteboards, smartphones).
Outdoor Activities	Activities taking place at locations other than the therapy room, home, and classroom
Physical Exercise	Physical exercise activities (trampoline, centering, throwing balls)
Cooking	Food preparation using actual ingredients.

(1) 놀이활동

대상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사물(풍선, 거울 등)이나 장난감(기차, 레고 등)을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 미술활동

색종이 자르기, 색칠하기, 물감사용, 종이 붙이기 등 미술 재료를 매체로 사용한 경우

(3) 음악활동

중재를 실시할 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피아노, 북, 탬버린 등)를 매체로 사용한 경우

(4) 그림글자카드

그림카드 및 글자 들어간 카드를 매체로 사용한 경우

(5) 컴퓨터 및 기계사용

컴퓨터, Tablet PC, 전자칠판 등 전자기기를 매체로 사용한 경우

(6) 야외활동

가정과 치료실, 학교 교실을 제외한 급식실, 놀이터, 패스트푸드점 등을 매체로 사용한 경우

(7) 운동활동

장애물 통과, 트램펄린, 매달리기 등 활동적인 움직임을 매체로 사용한 경우

(8) 요리활동

쿠키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주스 만들기 등 음식을 매체로 사용한 경우

**2)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기준**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기준은 홍경훈과 김영태(2001)의 분석표와 박현주 역(2014)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항목으로 요구하기, 자발화,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반응하기로 분류하였고 하나의 논문에 2가지 이상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각각 하나씩 중복으로 표시하였다.

**<Table 3> Analysis Criteria for Social Communication Evaluation**

Function	Sub-Function	Definition
Request	Action	Ability to request the addressee to take a particular action.
	Object	Ability to request the addressee for a particular object.
	Information Request	Ability to request the addressee to provide a response or confirmation in regards to a question.
Spontaneous Speech	Objective	Ability to respond to the addresser's needs.
	Subjective	Ability to take actions on objects or events/status currently observable.
AAC	Low & High Technology	Ability to communicate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devices and digital technology.
	No Technology	Ability to communicate using pictorial symbols to express one's opinions.
Response	Agreement: "Yes"	Ability to respond to a question with a positive answer.
	Protest: "No"	Ability to respond to a question with a negative answer.
	Selection	Ability to respond by making a choice from given options.
	Answer	Ability to respond to a general question.

(1) 요구하기

의사소통 상대방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물요구하기, 필요한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하기를 하위항목으로 정하고 분석하였다.

(2) 자발화

객관적 언급(이름대기, 사건/상태 언급, 주의 끌기, 고유특성 언급, 위치언급, 기능 언급, 시간언급)과 주관적 진술(감정/느낌 표현, 주장, 설명, 규칙 속성)을 사용한 경우 자발화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AC 도구는 전자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AAC(No Tech AAC)와 단순한 전자도구를 사용하는 AAC(Low Tech AAC), 첨단 전자도구를 사용하는 AAC(High Tech AAC)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고 No Tech AAC의 대표적인 도구인 PECS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4) 반응하기

예/아니오, 의문사대답, 선택반응을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여 반응하기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구들의 특성

##### 1) 연도 및 출판유형 분석

자폐범주성장애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연구의 연도별 논문 수 결과로 2019년이 10편(20.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2년 7편(14.58%)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을 제외한 연도에서 꾸준히 사회적 의사소통 관련 논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출판유형으로는 학위논문이 28편(58.33%)을 차지하였고 학술지 게재 논문이 20편(41.66%)을 차지하여 학위논문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 (1) 대상자 학령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학령을 분석할 때 학령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모두 포함된 연구일 경우 중복으로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령전기 24편(43.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 11편(20%), 초등학교 고학년 10편(18.18%), 중학교 이상 10편(18.18%) 순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 수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대상자 수 분석결과 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편(4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편(39.58%), 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8.33%), 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6.25%), 마지막으로 5명과 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 1편(2.08%)으로 나타났다.

## (3) 대상자 증정도

연구에 참석한 대상자의 증정도를 분석할 때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CARS)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경증-중간 15편(31.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증자폐 14편(29.16%), 혼합 10편(20.8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대상의 증재 환경

### (1) 증재장소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증재가 이루어진 장소로 치료실 22편(45.8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특수학교 7편(14.58%), 일반학교 6편(12.5%), 혼합 6편(12.5%), 유치원 4편(8.33%), 가정 3편(6.25%)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증재 장소의 혼합 6편 중 가정과 연계된 연구가 5편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증재자 분류

연구에서 증재를 시행한 증재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구자 34편(70.83%)이었으며 가족참여 9편(18.75%), 또래참여 5편(10.41%)을 차지하였다. 가족참여 중 어머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형제자매로 나타났다.

### (3) 연구 증재 기간

연구 증재 기간의 결과로 11-15회기와 16-2-회기가 13편(27.08%)으로 가장 많은 회기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1-25회기가 8편(16.66%)이며, 6-10회기와 26-30회기가 5편(10.41%)을 차지하였고 31회기 이상은 4편(8.33%)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2. 연구의 사용된 매체 및 중재기법과 사회적 의사소통 분석

### 1) 중재에 사용된 매체 분석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를 가르치기 위한 매체로 놀이활동 24편(29.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컴퓨터 및 기계사용이 18편(21.95%)으로 나타났으며, 그림글자카드 사용이 15편(18.29%)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미술활동과 야외활동이 각 7편(8.53%), 음악활동이 5편(6.09%), 운동활동과 요리활동이 각 3편(3.6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Analysis of Intervention Media

Intervention Medium	No. of Studies	Ratio (%)
Play	24	(29.26%)
Art	7	(8.53%)
Music	5	(6.09%)
Flashcard	15	(18.29%)
Technology	18	(21.95%)
Outdoor Activities	7	(8.53%)
Physical Exercise	3	(3.65%)
Cooking	3	(3.65%)
Total	82	(100%)

### 2) 중재 기법 분석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 기법을 분석한 결과 AAC 중재 13편(17.3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가족이 참여한 중재 9편(12%), 스크립트 중재 8편(10.66%), 환경중심 언어중재 6편(8%), 글자그림카드 중재 5편(6.66%), 또래가 참여한 중재 5편(6.66%), 비디오자기모델링 중재 4편(5.33%), 멀티미디어(컴퓨터) 중재 4편(5.33%), 중심축반응훈련 중재 3편(4%), 기능중심 중재 3편(4%), 음악을 활용한 중재 3편(4%), 미술을 활용한 중재 2편(2.66%), 감각통합중재 2편(2.66%), 놀이를 활용한 중재 2편(2.66%), 요리를 활용한 중재 2편(2.66%), 역할놀이 중재 1편(1.33%), 독서를 활용한 중재 1편(1.33%), PROMPT 중재 1편(1.33%)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5> Analysis of Intervention Methods

Intervention Method	No. of Studies	Ratio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13	(19.33%)
Family-Mediated	9	(12%)
Script	8	(10.66%)
Milieu Teaching	6	(8%)
Flashcard	5	(6.66%)
Peer-Mediated	5	(6.66%)
Video Self-Modeling	4	(5.33%)
Multimedia	4	(5.33%)
Pivotal Response Training (PRT)	3	(4%)
Function-Centered	3	(4%)
Music	3	(4%)
Art	2	(2.66%)
Sensation Integration	2	(2.66%)
Play	2	(2.66%)
Cooking	2	(2.66%)
Role-Play	1	(1.33%)
Reading	1	(1.33%)
Prompts for Restructuring Oral Muscular Phonetic Targets (PROMPT)	1	(1.33%)
Joint Action Routines	1	(1.33%)
Total	75	(100%)

**3) 사회적 의사소통 목표 분석**

사회적 의사소통 목표는 요구하기가 36편(37.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반응하기 25편(26.31%), 자발화 21편(22.10%), 보완대체의사소통(AAC) 13편(13.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Analysis of Social Communication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Criterion	No. of Studies	Ratio (%)
Request	36	(37.89%)
Spontaneous Speech	21	(22.10%)
AAC	13	(13.68%)
Response	25	(26.31%)
Total	95	(100%)

#### 4) 중재기법에 따른 사회적 의사소통 분석

연구에 사용된 중재기법에 따른 사회적 의사소통의 빈도를 분석하였고 하나의 중재기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였을 때 중복으로 표시하였다. 그 결과 요구하기와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는 AAC 중재로 나타났으며, 자발화와 반응하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는 스크립트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Table 7> Analysis of Social Communication Evaluation Criteria by Intervention Method

Evaluation Criterion \ Intervention Method	Requesting	Spontaneous Speech	AAC	Reacting	Ratio (%)
AAC	13	1	13	5	32(23.35%)
Script	8	5	0	6	19(13.86%)
Milieu Teaching	6	4	0	4	14(10.21%)
Flashcard	3	2	0	3	8(5.83%)
Peer-Mediated	4	2	2	1	9(6.56%)
Family-Mediated	3	1	2	1	7(5.10%)
Video Self-Modeling	2	2	0	2	6(4.37%)
Multimedia	3	2	0	3	8(5.83%)
PRT	1	2	0	1	4(2.91%)
Function-Centered	1	2	0	1	4(2.91%)
Music	0	2	0	1	3(2.18%)
Art	2	1	0	2	5(3.64%)
Sensation Integration	2	1	0	1	4(2.91%)
Play	1	0	0	2	3(2.18%)
Cooking	2	1	0	1	4(2.91%)
Role-Play	1	1	0	0	2(1.45%)
Reading	0	0	0	1	1(0.72%)
PROMPT	0	1	0	0	1(0.72%)
Joint Action Routines	1	1	0	1	3(2.18%)
Total	53 (38.68%)	31 (22.62%)	17 (13.13%)	36 (26.27%)	137(100%)

### 3. 중재 질적지표에 대한 분석

자폐범주성장애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연구들의 질적지표 분석을 하였다. 연구 절차 중 기초선 설정 여부는 45편(93.75%)에서 측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반복측정은

43편(89.58%)에서 측정을 하였다. 또한, 중재가 끝난 후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한 연구는 40편(83.33%)으로 나타났다. 중재 이외의 상황 속에서 일반화 유지가 되는지 확인한 연구는 20편(41.66%)으로 나타났다. 관찰자 간 신뢰도가 80% 미만인 연구는 0편(0.00%), 미표기 연구가 2편(4.16%), 80%이상~90% 미만의 연구는 2편(4.16%), 90% 이상 연구가 44편(91.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재 내용을 연구자가 충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중재 충실도를 분석한 연구는 26편(54.16%)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타당도를 확인한 연구는 31편(64.5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유형으로 중다기초선 설계 20편(41.66%)으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 15편(31.25%), AB설계 5편(10.41%), ABA설계 4편(8.33%), 사전 사후 설계 3편(6.2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Analysis of Quality Control Measures

Criterion	Sub-category	No. of Studies	Ratio (%)
Baseline Establishment	Y	45	(93.75%)
	N	3	(6.25%)
Repeated Measures	Y	43	(89.58%)
	N	5	(10.41%)
Replicability	Y	40	(83.33%)
	N	8	(16.66%)
Generalizability	Y	20	(41.66%)
	N	28	(58.33%)
Inter-Observer Reliability	< 80%	0	(0%)
	80% ~ 90%	2	(4.16%)
	90% <	44	(91.66%)
	Unspecified	2	(4.16%)
Treatment Fidelity	Y	26	(54.16%)
	N	22	(45.83%)
Social Validity	Y	31	(64.58%)
	N	17	(35.41%)
Experimental Design	AB	5	(10.41%)
	ABA	4	(8.33%)
	Multiple-Baseline	20	(41.66%)
	Multiple-Probe	15	(31.25%)
	Pretest-Posttest	3	(6.25%)
	Alternating Treatments	1	(2.08%)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폐범주성장애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연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논문 48편을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연구의 중재기법과 매체, 질적지표 분석의 큰 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른 연구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결론

연구 분석에 앞서 연도별로 게재된 논문 수와 출판유형을 알아보았다. 출판유형은 학술지 게재논문보다 학위논문 비중이 높았으며, 연도별 게재 수로는 2019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게재되었고 2015년도 이후부터 매년 5편 이상의 연구가 게재된 것을 보아 최근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중재에 사회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진 걸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결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대상자 학령에 따른 결과로 학령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음성언어 습득이 5~6세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언어 습득의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중재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가르쳐야 한다는 김인학(2002)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상자 수는 1명(41.6%)과 3명(39.58%)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았고 4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8편 중 5편뿐이었다.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연구가 대부분 소수로 연구를 진행하여 단일대상설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단일대상설계는 적어도 3명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소현 외, 2000). 예상치 못한 변수를 생각한다면 연구대상자를 4명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자 중증도는 경중-중간이 15편(31.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표기가 9편(18.75%)으로 나타났다. 자폐범주성장애의 편차가 심한 경우의 연구에서는 치료 효과 입증을 위해 중증도 표기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대상자 정보 기술 및 통제 그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사료된다. 중재 장소에 따른 분류로 치료실 22편(45.8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수학교 7편(14.58%)으로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혼합 연구의 6편(12.5%) 중 5편이 가정환경과 함께 연계된 것이며, 가정에서만 중재한 연구 3편(6.25%)을 추가하면 8편으로 특수학교보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연구의 사용된 매체 및 중재기법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하위 목표, 즉 중속변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중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매체 분석결과 장난감과

아동이 좋아하는 사물을 포함한 놀이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으로 컴퓨터 및 기계사용이 그림글자카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Meder와 Wegner (2015)에 의하면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의료, 경제, 교육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으며(정명철, 한경임, 2016), 이는 자폐범주성장애 치료에 AAC를 포함한 전자기기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재 기법 중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그 중 No Tech AAC(그림 상징)의 대표적인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ECS) 4편과 Low & High Tech AAC(디지털기계)를 사용한 연구 9편으로 총 13편(17.33%)을 나타냈다. 또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가족이 참여한 중재 9편(12%) 중 보완대체의사소통(AAC)중재 6편이 중복된 된 것이며, 자연스러운 환경인 가정환경에서도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AAC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이상복, 2002; Stebel, 1999)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전자 전자책, 터치스크린, 컴퓨터 등) 중재가 4편(5.33%)으로 Low & High Tech AAC 9편(12%)과 같이 생각해본다면 전자기계를 사용한 자폐범주성장애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 중 ‘요구하기’를 의사소통 중재의 목표로 설정한 연구가 전체 연구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매체를 사용하는 중재방법 연구들과 상당 부분 중복되었다. ‘요구하기’와 함께 ‘자발화’를 목표로 하거나 ‘반응하기’를 목표로 하는 연구도 일정 부분 겹쳐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요구하기’는 생애 초기부터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 범주가 된다는 점과 함께, 원하는 사물을 얻기 위해 직접적 요구 및 간접적 요구로 발달시켜야 하는 언어발달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는 점(Pence & Justice, 2010)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폐범주성장애 아동도 비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요구하기’ 기능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으로 초기에 중재해야 할 목표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상대 요구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를 위해서 ‘요구하기’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했을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결국 의사소통 상대자가 먼저 대화를 잘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발적인 발화를 발달시키기 어렵고(전상신, 2008), 기초 의사소통 기능에 있어서 공동주의 및 도구적이며 조정적인 기능은 대화기술의 습득을 위한 기본적인 선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재 기법에 따라 목표로 설정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살펴보았을 때 요구하기 중재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이 AAC중재와 스크립트 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구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매체는 놀이활동, 컴퓨터 및 기계사용, 그림글자카드 순으로 많았다. 자발화 중재 시에는 스크립트 중재와 환경중심 언어중재 사용의 비중이 높았고 놀이활동 매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반응하기’를 가르칠 때는 스크립트 중재와 AAC 중재 사용이 많았지만 다른 중재 방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요구하기 증진을 위해서 놀이활동을 매체로 설정하고, AAC중재와 스크립트 중재를 사용하였으며 자발화 증진을 위해서 환경언어 중재와 스크립트 중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질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서 중재충실도 26편(54.16%), 사회적 타당도 31편(64.58%)으로 나타났다. 중재충실도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기능적 관계에서 중재를 얼마나 충실히 시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영숙, 김은경, 2007). 또한 사회적 타당도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중재 목표와 변화에 사용되는 방법이 수용 가능한지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중재충실도와 사회적 타당도가 모든 연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계유형으로는 중다기초선 설계와 중다 간헐 기초선과 같은 단일연구설계가 많았다. 단일대상연구는 비교가 되는 통제집단 없이 한 개인의 수행을 평가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 학생 개인의 행동에 대한 독립변인 중재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 방법으로(변관석, 2018)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처럼 개인 간 차이가 큰 장애에 유효한 방법이라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자폐범주성장애를 위한 중재연구 중, 사회적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 여러 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중재 대상자는 모두 자폐범주성장애였으나 중재 행위자의 경우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를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를 구분하여 중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중재기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연구 장소, 사회적 의사소통의 하위 목표 등에 대해 별도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효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연구에서는 효과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실제적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설정된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 목표와 관련하여 여러 기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재 목표설정 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연구들에서 사용된 수많은 기법이나 중재목표를 모두 아우르지는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중재환경과 중재자 등 추가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그에 따른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 논문 분석 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서 디지털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AAC(No Tech AAC)와 디지털 기계를 이용한 AAC(Low & High tech AAC)를 구분하지 않고 AAC 항목 하나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PECS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AAC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러한 중재를 시도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한 연구들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SCERTS, ESDM, 무발화 자폐범주성장애를 위한 PROMPT 등의 프로그램 적용, 또 이러한 연구의 증거기반 실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니는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또는 성인의 중재에서 진보된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ukelman, D. R. & Mirenda, P. (2014).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eoul: Hakjisa.
- [박현주 (2014). **보완대체의사소통**. 서울: 학지사]
- Byeon G. S. (2018). *Writing research paper using single subject design*. Kyoyookgwahaksa.
- [변관석 (2018). **단일대상설계를 활용한 현장연구 논문작성법** (1판). 교육과학사.]
- Hong G. H. & Kim Y. T. (2001). Longitudinal study of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intentions.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8(1), 1-21.
- [홍경훈, 김영태 (2001)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6(1), 1-21.]
- Jeon S. S. (2008). Effects of social story intervention on the sponuaneous utterance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DanKook University.
- [전상신 (2008). 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자발적 발화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ung M. C & Han K. I. (2016). Effects of intervention using mobile AAC App TalkFrien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a high school student with autism in the community setting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2(3), 321-341.
- [정명철 한경임 (2016). 모바일 AAC 앱 토크프렌드를 이용한 중재가 지역사회 상황에서 자폐성 장애 고등학생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2(3), 321-341.]
- Kim H. E. & Mun H. M. (2019) The effects of function-centered comprehensive intervention on immediate echolalia and appropriate communication responses of a young child with autism.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2), 101-126.

- [김하은, 문현미 (2019). 기능중심의 종합적 중재가 자폐성장애 유아의 즉각반향어 및 적절한 의사소통 반응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9(2), 101-126.
- Kim I. H. (2002). Effects of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PECS) intervention on severely autistic children's functional communication acts with nondisabled sibling. Ewha womans University.
- [김인학 (2002). 사진 교환 의사소통 체계(PECS)를 이용한 중재가 중도 자폐아동과 비장애 형제간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Y. T. (2014). *Assessment and treatment of language disorders in children*. Seoul: Hakjisa.
- [김영태 (2014)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서울]
- Ko Y. S. & Kim E. K. (2007). A Meta-analysis of Single-subject design studies for improving socializ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for autistic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3(1), 1-27.
- [고영숙, 김은경 (2007). 근거 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를 구축하기 위한 메타 분석: 자폐범주성 장애인의 사회성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3(1), 1-27.]
- L. J. H. & DONNA F. A. (2014).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effective instructional practices*. Seoul: Sigmappress.
- [신현기, 이성봉, 이병혁 (2014).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서울.]
- Lee D. W (2017). Effects of language intervention based on sensory integration training on communication behaviors of autistic children. Daegu University.
- [이동욱 (2017). 감각통합훈련에 기반한 언어중재가 자폐아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B & Luke Y. T & Kim J. I (2002). *Early intervention of young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Daegu University Press.
- [이상복, Luke Y. Tsai, 김정일 (2002). *자폐성 영유아동의 조기중재* 대구대학교 출판부.]
- Lee S. H. (2000). *Single subject research in educational and clinical settings*. Seoul: Hakjisa.
- [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교육 및 임상현장 적용을 위한 단일대상연구*. 서울: 학지사.]
- McTear, M., & Conti-Ramsden, G (1992). *Pragmatic disability in children*. Sam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Meder, A. M, & Wegner, J. R (2015). iPads, mobile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 applications: A survey of family wants, needs, and preferenc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31(1), 27-36.
- Park. J. Y (2012). A research synthesis of intervention for improving communication ability of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anKook University.
- [박지윤 (2012). 자폐범주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법에 관한 문헌 분석.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ence, Khara L., & Justce, Laura M (2010). *Language development from theory to practice*. Seoul: Hakjisa.  
[김성수, 김화수, 이상경, 황보명 (2010). 언어발달, 서울: 학지사.]
- Tony C. & Wendy S. (2009). *Social & communication development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Seoul: Sigmappress.  
[이소현, 이은정 (2009).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 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Whalon, K. Hanline, M. F (2008). Effects of a reciprocal questioning intervention on the question generation and responding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4(3), 367-387.

## 분석대상논문

- 장지혜 (2016). 유치원 일과 스크립트를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자발화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권민경 (2018). 스크립트 문맥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자폐성장애유아의 의사소통 기능과 울기 행동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양, 박은혜 (2013). 중도장애아동을 위한 가족중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중재가 부모의 의사소통 전략 및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 장애연구*, 13(1), 119-148.
- 김기철 (2012). 프래모델링을 통한 그림교환의사소통 중재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선 (2018). 주 양육자가 촉진자로 참여한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ECS) 중재가 자폐성장애 아동의 요구하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설아, 김은경 (2019). 협력적 팀 접근을 통한 중심반응교수(PRT)가 자폐성장애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5(1), 15-42.
- 김수정 (2017). 비디오 모델링을 결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정연, 윤형준 (2015). 통합교육환경에서 AAC중재가 자폐성장애 학생의 의사소통행동과 문장 표현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293-315.
- 김하은, 문현미 (2019). 기능중심의 종합적 중재가 자폐성장애 유아의 즉각반향어 및 적절한 의사소통 반응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9(2), 101-126.
- 김하은 (2018). 긍정적 행동지원을 활용한 중재가 자폐성장애 유아의 즉각반향어 및 적절한 의사소통 반응에 미치는 효과. *정서 학습장애아교육 학술발표회*, 18(1), 135-139.
- 문채연 (2019). 콜라쥬 활동이 자폐성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가야대학교 보건대학원.
- 민경심, 임장현 (2019). 통합학급 차원의 AAC 중재가 일반학생의 장애인식과 자폐성장애학생

- 의 의사소통행동에 미치는 효과.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7(1), 47-75.
- 박다해 (2017).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ECS)를 활용한 중재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자발적 사물 요구하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성혜 (2009). 손인형을 활용한 상황이야기 활동이 자폐성 중학생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경, 문현미 (2019). 비디오자기모델링과 사진이야기활동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시작기술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5(2), 53-73.
- 박은경 (2011). 게임놀이를 이용한 소그룹 언어치료 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방남옥, 김유경 (2016). 학교생활 공동행동일과(JARs) 프로그램이 학령기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5(2), 21-35.
- 방은 (2017). 중심축 반응훈련을 적용한 문답형 동요 프로그램이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송지연 (2011). 자폐성 아동의 언어기능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협동활동 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송희림 (2019). 파워카드 중재가 자폐성 장애 중학생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신효순 (2013). 일반아동이 참여한 과정중심 역할놀이가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혜경 (2009).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의 활용이 중증 자폐성장애 아동의 자기의사표현 행동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유지수, 김수지 (2019). 구조화된 노래부르기 중재가 학령기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자발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21(3), 321-347.
- 윤수진 (2010). 그림자료와 멀티동화를 활용한 시·청각 지원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의문사 이해에 미치는 효과 용인대학교 대학원.
- 이동욱 (2017). 감각통합훈련에 기반한 언어중재가 자폐아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이리우 (2019). PROMPT 기법을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이 무발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구어 및 비구어 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상아, 최진혁 (2018).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자발화와 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20(3), 131-157.
- 이상현 (2010). 하이테크 보조공학 기반의 상황 이야기 중재 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과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 이수진 (2015).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FCT)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자발적 의사소통 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승미 (2011).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 중재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승현 (2019). Floortime기반의 감각통합 프로그램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의심 유아의 부모-유아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한술 (2015). 멀티미디어 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성장애 청소년의 또래와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광, 박주연 (2011). 터치스크린 기반 공학기기를 활용한 글씨쓰기 보완대체의사소통훈련이 비구어 자폐성 장애학생의 의사소통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3(2), 341-362.
- 임현수, 김은경 (2013). 부모 개입 중심반응중재(PRT)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121-148.
- 장오선, 강창욱 (2012). 제과·제빵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자폐성장애아동의 의사소통기능향상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6(4), 195-218.
- 전인순 (2011). 멀티미디어 기반의 또래 모델링-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성장애 학생의 사회적 의사소통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 정명철, 한경임 (2012). 정서, 행동장애연구 : 비구어 자폐성장애 학생의 의사소통과 상동행동에 대한 PDA 활용 보완, 대체 의사소통 중재의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447-471.
- 정명철, 한경임 (2016). 모바일 AAC앱 토크프렌드를 이용한 중재가 지역사회 상황에서 자폐성장애 고등학생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2(3), 321-341.
- 정명철 (2009). PDA를 이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중재가 비구어 자폐성장애 학생의 의사소통과 상동행동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지정훈 (2015). 파워카드 전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의 SNS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최진혁, 김대용, 김보람 (2016). 스크립트활용 중재가 자폐성 장애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애연구, 16(2), 133-150.
- 한선경, 김영태, 박은혜 (2012). 태블릿 PC를 이용한 AAC 중재가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양상에 미치는 영향.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7(1), 92-106.
- 한선경 (2012). 가정환경에서의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가 비구어 중도 자폐범주성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양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영선 (2019). 독서 프로젝트 활동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허은정 (2017). 비디오 자기모델링을 이용한 상황이야기 중재와 문자카드를 이용한 비연속개별 시행 중재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미치는 효과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허현진 (2009). 일상생활 사진을 활용한 책만들기 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 학생의 자발적 요구 하기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혜리 (2012). 창작곡을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 홍성운 (2011). 자폐성 장애 음악치료의 연구동향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문 초록>

## 자폐범주성장애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연구 분석

이근용 · 김화수 · 이상진

**[목적]** 본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 관련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중재연구의 사용된 매체, 중재 기법,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행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연구 48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 번째로 연도와 출판유형에 따른 현황과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정보를 살펴본 결과 연도별 게재 수는 2019년도가 가장 많았으며, 학술지 게재보다 학위논문이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대상자 연령은 학령전기가, 중증도는 경중-중간을 나타낸 연구가 많았으며, 또한, 1명 또는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두 번째로 연구대상의 중재 환경으로 장소는 치료실에서 실시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중재자 유형은 연구자 비중이 높았다. 또한, 중재 기간은 11-15회기, 16-20회기가 많았다. 세 번째로 중재목표인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매체 분석 결과 놀이활동, 컴퓨터 및 기계사용, 그림글자카드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중재기법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가족이 참여한 중재, 스크립트 중재, 환경중심언어중재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의사소통 별 분석은 요구하기가 가장 많은 중재 목표로 나타났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과 상당 부분 중복되었다. **[결론]** 중재 기법에 따른 사회적 의사소통 분석으로 요구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기법은 AAC중재와 스크립트 중재가 많았으며, 자발화는 상황이야기 스크립트 중재와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많았다.

**주제어 :** 자폐범주성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매체, 중재

논문 접수(Received): 2020. 11. 09. / 심사 시작(Examined): 2020. 11.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0. 12. 16.